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샘터사랑들



2022 겨울호
Vol. 36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 21037 |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 (계산동 935-6)

T.(032)541-4737 / F.(032)541-4738 / <http://소망의샘터.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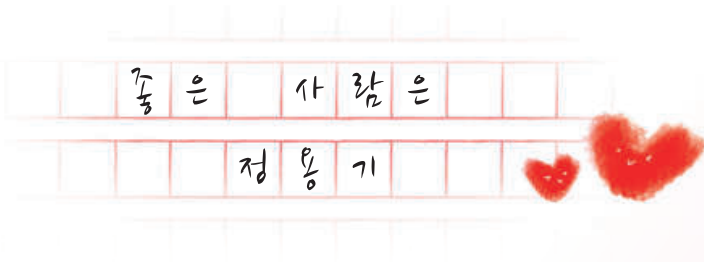
CONTENTS

- 03 **한우편지** | 근육병환우 정용기 “좋은 사람은”
- 04 **공익법인 사회공헌** | 틈새없는 가정 나눔사업 성공기탁 관내 동사무소
- 05 **공익법인 사회공헌** | 사회 공헌 활동 관내 구청장상 수상
- 06 **시설탐방** | 아산 장애우시설 “사랑의집 에덴”
매일매일 도전하는 사랑의집 원우들!
- 07 **시설탐방** | 성남 장애우시설
“다사랑 마을” 다사랑마을 식구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 08 **시설탐방** | 파주 출소자시설
“제2 소망의샘터” 나는야 출소자 시설의 어머니!
- 09 **시설탐방** | 인천 근육병환우시설 “참조은 친구들” 친구들의 꿈!
- 10 **살며 생각하며 배우며** | 근육병환우들과 나들이
- 11 **겨울준비** | 봉사의 기술
- 12 **독거가정 돌보기** | 함께하는 세상
- 13 **독거가정 돌보기** | 나눌수록 더 커지는 행복 “최정자 할머니덕 대청소”
- 14 **각 시설 위치도**



Renewal Renewal website
 저희 소망의샘터 홈페이지가 <http://ever.or.kr>에서
<http://소망의샘터.kr>로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에서 샘터소식과 식구들의 근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방문하여 글 남겨주시면 힘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정용기 작성일: 22-10-17 16:22

어색함이 없이 평안하고
오래된 친구처럼 격이 없고
진심이 묻어나는 말과 행동만 봐도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뭐든 해주고 싶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길 바란다.

꾸미지 않아도 사랑스럽다.
겉모양이 아닌
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별 이유 없어도
마음을 닮고 싶은 사람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소망의 샘터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덧글1: 정용기님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덧글2: 정용기님을 만나고 온 날은 마음이 맑아 짐니다.
덧글3: 정용기님은 센스쟁이, 유쾌함이 있어 좋습니다.
덧글4: 정용기님의 도전하는 용기는 환우들에게
희망입니다.*^^*





메뉴 | 뉴스 | 전국네트워크 | 스포츠/연예 | 기획/특집 | opinion | 사람들 | 영상스케치 | 오늘의 인물 | 현장취재 | 🔍

인천

홈 > 전국네트워크 > 인천

소망의샘터, 틈새 없는 가정 나눔사업 성금 기탁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 등록 2022.09.15 15:03:15



▲ 소망의샘터, 틈새 없는 가정 나눔사업 성금 기탁 © 계양구청 제공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에 소재한 소망의샘터는 지난 14일 “틈새 없는 가정 나눔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성금 300만 원을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인 “틈새 없는 가정 나눔사업”은 후원자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가정과 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액의 현금과 물품 등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최희용 대표회장은 “이번 성금기탁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과 후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망의샘터는 2017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지원한 취약계층 세대는 총 122세대 4,956만원에 달한다.

한은정 계산2동장은 “소중한 성금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 8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망의샘터는 늘 힘껏 보태겠습니다.



관내 구청장상 수상!

코로나 펜데믹상태가 아직도 요원한 가운데 계절병인 독감까지 유행을 예측하면서 트윈데믹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윈데믹(Twindemic)뜻은 펜데믹 수준의 전염병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으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단계라고 합니다.

경기침체에 고용도 경고음이고 월급은 내려가고 물가는 오르고 각종 대출 이자는 올라가는 지금.. 모두가 하루 앞이 어두운 요즘입니다.

저희 소망의샘터!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다는 강령으로 어려운 이웃들 곁에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인내하며 어언 20여 년을 걸어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느끼며,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해하고,

힘들고 괴로우더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열 가지의 일을 하기보다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보듬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열린 소망의샘터로 거듭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를 입고 사니 감사하고 그 깊은 뜻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도전도전! 매일매일 도전하는 사랑의집 원우들!

사랑의집 에덴 이야기~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로 외부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선생님들과 직업체험활동(농업치유, 목공, 버닝, 커피, 재활, 반려견)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답답했던 마음이 치유되었으며 에덴 식구들은 2022년을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설날엔 녹두전을 보름달만 하게 부쳐 식구들과 한껏 명절 기분도 내보고, 눈덮힌 겨울 에덴에는 장난꾸러기 망고(애견)가 있어 또 다른 행복들을 만들어 가지요~

우리 에덴 식구들은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3년 동안 하다 보니 유명한 커피숍 바리스타처럼 즉석에서 내린 향이 그윽한 커피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제법 완성도 높은 목공예 작품들도 탄생했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었던 목공예 작품들을 모아 화창한 5월에 우리들만의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식구들의 컨디션이 회복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마당에 모여 다같이 자전거로 기차놀이도 하며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았습니다.

소망과 사랑으로 에덴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샘터선생님들, 봉사자님들이 계셔서 행복 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사랑마을 식구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이번에 소망의샘터에서 보내주신 갈비탕덕분에 이번 여름은 힘내서 더위를 이겨낼거 같습니다. 다사랑마을 식구들 갈비탕을 먹고 무더운 삼복더위를 힘차게 보낼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인연으로 시설거주인 분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가운데 건강하세요.
22-07-25 12:59



코로나로인해 몇년을 돌아다 니지 못했는지... 드디어 인원제한이 풀리고 여행의 제약이 사라져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보내주신 후원으로 즐겁게 잘먹고 잘쉬다가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다들 너무 신나고 비행기도 타는것도 처음처럼 신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망의 샘터 덕분에 많은것을 누리고 즐길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진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2-07-28 15:48



아무도 찾지않는 쓸쓸한 추석이지만 소망의 샘터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어 다사랑마을 식구들끼리 명절 음식도 나눠먹고 서로 덕담하며 나름 즐거운 추석을 보내었습니다. 덕분에 다사랑마을 장애인식구들의 마음에 항상 감사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가을날 언제나 감사함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22-09-19 15:55



다사랑식구들 소망의샘터 지원으로 감사해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재발된 암이란 놈과 싸우면서 지금은 회복중에 있습니다. 식구들 모두 코로나로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분당교회 청년들과 꽃화환 만들어 써보기도 하고 따뜻한 관심으로 식구들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22-11-02 20:52



암과 투병중인 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든든한 원장님이자 보호자로 식구들 곁에서 늘 건강하게 계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는야 자랑스런 출소자 시설의 어머니!



조~용한 집이 시골벽적 집 나간 지 10여 년 된 성영(가명)이가 집을 찾아왔다.

성영이는 좋은 직장 출퇴근하며 동생들에게는 존경, 형들에게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집안일을 솔선 수범하며 집에 중심이었던 형제였습니다. 2년 전 화성교도소에서 오갈 데가 없다며 상담 관리 후 우리 집에 입소하게 되었고 성영에게 맞는 직장을 알선해 취직도 시켜 주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성영이 사장님에게 신임을 받아 6개월 만에 대리, 1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였는데...

그런 성영이가 어느 날 연락 두절 사라졌습니다. 내가 야끼고 사랑과 정성을 다한 성영이었기에... 직장과 집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믿었던 성영이가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져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수없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았지만, 응답이 없고... 혹시 재범? 사고?

불안과 초조 속에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며 수 없는 날을 눈물 흘렸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배신감과 허탈감 속에 훌쩍 집을 떠난 성영이를 원망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스칩니다. 무탈하기를 기도하며 나 자신을 위로했던 시간과, 새벽 출근길에 식사와 간식거리를 준비해 주며 공들였던 일들... 그렇게 연락 두절 내 가슴을 태웠던 성영이가 28일 선물을 가득 안고 대문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대문을 들어서는 성영이의 모습에 그동안 미움, 원망이 가득했었지만 반가움에 가려져 아무 말없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모두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며 성영이의 만남이 서로 어색했지만 그래도 반가움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성영이에 두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작업하던 형제들, 생활관에서 티비를 보던 형제들, 후계실에서 있던 형제들이 환성과 손뼉을 치며 성영이를 반기는 모습에 서로는 가족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많이 궁금했지만, 사회에 적응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와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마음 놓이는 일이었습니다. 성영이 형제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틈이 생기면 자주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앞으로도 사회에 적응을 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순간 모든일이 헛일이 아니었음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값진 일이라는 것에 셀프 칭찬을 합니다^^

나는 자랑스런 출소자 시설의 어머니! 그들이 재범하지 않고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도와 주겠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소망의샘터에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시도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커피봉 고리와 나사못을 봉지에 담은 부업으로 1인당(개인차 있음) 1만원까지도 받고 있음^^

▼ 사진은 봉사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



친구들의 꿈!



2022년 올해는 참조은 친구를 시작한지 만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봄 4.15일이 딱한 심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7월4일 드디어 비좁고 이동도 불편했던 낡은 빌라를 떠나 34평의 높은 25층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어렵게 어렵게 은행 대출로 얻은 전세지만 운동장 같은 거실과, 25층에서의 풍경은 이동이 불편한 식구들로 서는 하늘을 가까이에서 보는 듯한 신비함 이었을 듯 합니다.

인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멀리 시내 끝에 산등성이 너머 송도 포스코 빌딩이 보이기도 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 빨래도 잘 마르고, 자그마한 고무나무 화분과 꽃들을 진열해 놓으니 분위기가 무척 좋습니다.

거실에는 금지막한 베이지 색상의 긴 소파를 갖다 놓고 반대 벽면 TV거치대 옆에는 재일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책상을 놓았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재일이는 늘 자기방에서 컴퓨터에 빠져있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는데...

이젠 혼자 컴퓨터 하지 않고, 함께 대화하며 식사도 하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넓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 오니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이 입소하여 함께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애우식구들과 원장님의 꿈은!! 교통 좋은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에서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어 배추랑 상추, 무,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을 심어 따출러 일해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멀리가지 않아도 휠체어를 타고 집 주변에서 마음과 몸을 힐링할수 있는,, 햇빛과 푸른 녹색의 흔들림이 장애인 청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을가 싶은 마음에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뻥뻥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동안 생활할지 알 수 없지만 사는동안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일이와 정혜는 심한중증의 지체와 지적으로 중복장애에 갇혀 살지만 오랫동안 참조은과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코로나에 몽땅 감염되어 보름 가까이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어떤 부작용도 없이 병원을 나왔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아찔하기도 하고 모두가 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재일이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낮밤으로 간병 하느라 잠도 잘 못자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견디는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일이는 1주일을 거의 밥을 못 먹고 물만 한 모금씩 마시고 힘들어 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재일이가 열흘이 지나며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그리고 밥을 조금씩 먹더니 기어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였고, 옆 병실에 입원하였던 정혜 입원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전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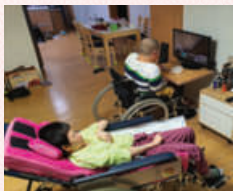
코와 손등에 주렁주렁 달고 있던 링거 줄을 와드득 다 뽑아 버리고 씹씹 거리며 새끼 죽여! 하며 간호사들과 우리를 당황케 하였지만 코로나가 감히 여짜지 못했던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도 지극처럼 웃으며 잘 지내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환우들과 함께 해온 10년처럼 앞으로도 10.20년 제 힘이 다 할때까지 그들 곁에 든든히 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조은 식구들은 행복한 꿈을 꾸니다.

10년을 맞아 소망의센터와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참조은 친구” 일동 올림



근육병환우들과 나들이~

천고마비의 계절~ 공기. 바람. 구름. 햇빛이 너무 좋은 가을에 근육병 환우들을 앞세우고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3년 만의 외출에 표정 관리 서투른 솔직한 환우들은 함박웃음으로 즐거웠고, 차이나타운 입성으로 중국 요리로 푸짐하게 맛있는 점심도 먹고 식사 후 소화도 시키고 쌓였던 담소도 나눌 겸 휠체어를 밀고 인근 자유공원에 올랐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려니 힘들기도 하였지만, 표정은 모두다 너무 행복해~행복해~^^

100년이 되었다는 아주 큰 나무 아래서 담소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간식과 커피도 마시니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날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공원 내에서 중구청 시민의 날 행사로 선물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퍼펙트, 화룡점정이 아니었는지...^^,

식당에서 휠체어 부대에 보냈던 약간의 짜증을 내는 시선이 있어서 마음 상했었지만 시원한 바람과 눈부시게 파스한 햇살이 모두에게 너무도 많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고 다시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

사회복지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정신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환우들 앞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책 한 권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 집니다.

삶의 매 순간이 전쟁일 환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도전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봉사의 기술!

바이러스와 싸우고, 환경재앙과 싸우고, 불경기와 싸우고.

그리고 가끔 인재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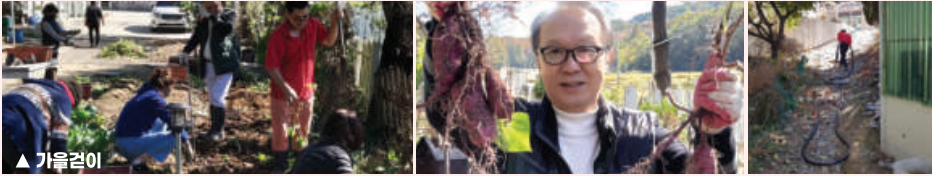
독거노인 중 겨울 문턱에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고, 풍전등화처럼 하루하루가 위태로워 보이는 할머니도 계시지만.

녹녹지 않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았던 2022년도 네 곳의 시설 식구들과 홀로 삶까지, 그리고 봉사자들 모두 잘 이겨내 별 탈 없이 지낸 감사함도 있습니다.

10월 가을걷이를 시작으로 11월 초엔 보일러에 기름 채우고 겨우내 먹거리인 김장 그리고 겨울옷과 이불 등을 준비해야 하니 가을을 느끼기 전에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또한 20년동안 달려온 봉사의 기술이 아닐까?..^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맹수들은 산이 깊어야 하고,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살고,
또한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독거노인들은 우리의 도움이 간절하고, 소망의섬터 모든 식구는
사랑으로 소망의섬터에 뿌리내리신 선생님들이 계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심과 격려로 인연의 끈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께 감사를 되새깁니다.



함께하는 세상!



1월부터 12월까지 방문이 많도록 자주 방문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라는 복병때문에 그마저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OECD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4%에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까지 도달하는 데 약 7년이 걸릴 것으로 최근 추산. 이는 미국(15년), 독일(36년), 영국(50년), 오스트리아(53년) 등 주요국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이라합니다. 노인들의 아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률은 높지만 빈곤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그 아이러니한 현실앞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행복 최정자 할머니 맥 대청소



김포 임시 건물에 사시는 최정자 할머니!!

소망의센터에서 20년을 돌보고 있어 봉사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소망!! 난 너희가 좋아~' 하시며 장판 아래 감 쥐든 5천 원짜리를 건네며 밥 사 먹으라고 하시던 할머니!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가 딸이라고 눈물을 흘치시던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세상과 맘을 쌓고 누워계십니다.

추석 명절 이것저것 준비해서 찾아보았을 때 할머니 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긴 보단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방엔 온통 곰팡이가 피어있고, 구석구석엔 먼지와 원지 모를 사체들이 말라 있었고, 할머니이 깔고 덮고 있는 이불은 대, 소변과 먼지로 범벅이 되있었고, 사람이 사는 방인지 동물이 사는 방인지 동물의 털과 배설물이 할머니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그리고 할머니 맥으로 들어가는 좁은 오솔길엔 풀들이 수북하게 자라서 길인지 숲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절 쇠고 서둘러 청소날짜를 잡아 봉사자 모두 출동하였습니다.

수풀 속 모기떼는 낯선 방문자의 수혈을 반기듯 까맣게 달라붙었고...무방비로 누워계시는 할머니은 모기 밥이 되어 누워 계셨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무엇보다 당신 영역에 누군가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셨던 할머니이였기에 청소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내~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뒤!!!" 라고 하셨습니다.

김포 북변동 관할 동사무소 복지 담당 주무사님이 말씀하시길 정자 할머니은 까칠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노인이라고... 청소계획 또한 있었지만 극구 싫다고 하셔서 못 했고... 이전 코로나로 그 마저도 쉽지 않게 되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은 청소가 끝나고 새로 사간 매트와 이불을 깔고 덮어드리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방문하시는 사람은 있지만 너희처럼 쓸고 닦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시며... 새 이불이 포근해 좋다고, 추위를 많이 타서 따뜻한 걸 좋아한다고 하시며 좀처럼 말을 아끼셨던 할머니이 눈물을 보이시며 물어두었던 말을 토해내셨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계시는 할머니!!

그래도 시설은 싫다고 하시니 사시는 동안 할머니만의 행복안에서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센터 각 시설 위치를 소개합니다.

제 1 기관

사랑의집에덴 (장애우시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호로840번길 88-49



제 2 기관

파주소망의센터 (홀소자 및 부양아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579



제 3 기관

참조은친구 (근육병환우시설)

인천시 서구 건지로402
가조한신희플러스
114동 2502호



제 4 기관

다사랑마을 (장애우시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79번길 25



TEL : (032) 541-4737 | FAX : (032) 541-4738

01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에게 조차 버려진 장애우들은 시설의 원장님, 사모님과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전부인 장애우 아이들과,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 노후를 많이 힘겹고 외롭게 보내시는 할머니님과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받아주는 곳이 없어 재범을 되풀이 하는 출소자들과 그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 재범을 막아내려 애쓰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질병으로 사는게 고통인 이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02

소망의센터
회원이 되시면.

- ▶ 소망의센터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 소망의센터에 관련된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의 10%내에선 100%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www.소망의센터.kr)을 통해 소망의센터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3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 ▶ 무의탁 노인
- ▶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
- ▶ 보호자가 있으나 여러가지 형편상 위탁이 불가피 하신 분들은 (032)541-473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입소를 도와드립니다.

04

기부금영수증
발급

저희 소망의센터는 기부금단체 관계법령 법령 39 ① 1 마(기부금코드 41)에의거 지정기부금 발급기관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기존 은행용으로 발급받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음)로 로그인 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가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후원문의 | (032)541-4737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국 민 | 656501-01-250453
농 협 | 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DUM 또는 NAVER, ZUM 등

포털사이트에서 를 검색하세요.



사랑의집에덴



제1기관 | 장애우 시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호로840번길 88-49

샘터사람들



제2기관 | 출소자 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579

참조은사람들



제3기관 | 근육병환우 시설
인천시 서구 건지로402
가좌한신휴플러스 114동 2502호

다사랑마을



제4기관 | 장애우시설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79번길 25



21037 |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 (계산동 935-6)
T.(032)541-4737 / F.(032)541-4738
<http://소망의샘터.kr>